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공간 23일 개관

103억 투입 5년간 문화재생 사업 교류·체험·영상촬영 공간 재탄생 지역미디어라이브러리 구축 협약도

장흥군은 오는 23일 옛 장흥교도소 교회당에서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개관식'을 개최한다.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흥교도소 시설을 문화예술 교류공간, 교도소 체험공간, 영상촬영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이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에 걸쳐 103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옛장흥교도소 건물 6동을 리모델링해 영화로운 책방, 글감옥, 집단체험장 및 장흥교도소 아카이브, 교정역사전시관 등 특색적이고 유일한 전시물을 제작 설치했다.

장흥군은 개관에 즈음해 법무부 교정본부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약 주요 내용은 전국 유일의 옛 장흥교도소 내 조성된 교정역사전시관의 운영, 옛 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 조성에 필요한 자료 발굴 및 연구지원, 대국민 홍보 관련 콘텐츠 협조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해 23일 개관하는 옛 장흥교도소.

한국영상자료원과는 옛 장흥교도소 연무장을 리모델링한 영화로운 책방에 지역미디어라이브러리를 구축 운영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지역미디어라이브러리 서비스는 한국 고전 영화, 영화대본시나리오를 서울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을 방문하지 않고 무료로 영화로운 책방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날 개관식에는 식전행사로 축하공연, 분행사료 경과보고,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의

새로운 이름 빼빼용Zip 비전발표, 상패수여, 성공 발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식후행사로 테이프커팅, 시설라пам이 진행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프리즌호텔, 장흥영상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공공배달업 먹개비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진행

강진군이 강진군민을 위해 공공배달업 먹개비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5일까지 먹개비 앱을 통해 1만5000원 이상 결제 때 즉시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23일까지는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24일-25일까지는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할인 쿠폰 적용 방법은 '주문하기'에서 '할인 수단'을 선택한 후, '할인 쿠폰 적용'을 누르면 된다. 한정 수량에 한해서 이벤트 기간 내내 1인당 매일 1회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발행한 자체 할인 쿠폰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업 먹개비는 앱 내 결제 때 강진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상품권 구입 때 10% 할인이 적용된다. 결제 방법은 '주문하기'에서 '결제 수단'에서 '강진사랑상품권 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공공배달업 먹개비를 통해 올해 선보였던 다양한 할인이벤트는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업 먹개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윤병태(가운데) 나주시장이 지난 16일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내년 하반기로 유예

지역화폐 예산 75억 자체 편성

나주시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대책반을 구성하고 새해부터 지원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이날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 시장은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한 하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나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

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 예정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화폐(나주시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을 자체 75억원을 편성해 새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화폐 할인을 지속을 통해 쉼 없이 얼어붙은 골목상권과 연말-연시, 설 명절 특수를 되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페이백, 캐시백 등 소비 진작 이벤트도 연중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토양개량제 내년 1월20일까지 신청 하세요

장성군 구입 비용 전액 지원

장성군은 '2026-2028년 공급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내년 2월 20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구산질과 석회질(파쇄석)비료 토양개량제를 지역농업인에게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3년 1주기 연차별로 시행한다. 장성읍과 진원·남·동하면은 2026년, 삼서·삼계·황룡·서삼면

2027년, 북일·북이·북하면은 2028년에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업경영체다. 공급신청서에 농지 정보, 비료 종류 등을 적어 농지소재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농지를 비옥하게 관리하고 농가 경영부담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화한 뒤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지난 10일 동면변영회 주관으로 열린 춘란 재배 하우스 개소식에는 구북구 화순군수를 비롯해 박연 변영회장, 김영숙 춘란분과 위원장, 배용일 화순난연합회장, 김정현 동면난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화순군, 동면에 춘란 재배 하우스 개소

회원 33명 분양 받아 난 재배

화순군이 폐광으로 침체한 동면에 춘란 재배 시설을 조성했다.

화순 동면변영회 춘란 재배 하우스는 동면 천덕리 555-1번지에 건축한 517㎡ 규모 1개 동 비닐 하우스 시설이다.

하우스 내부는 기계실과 재배실로 나뉘 있으며 재배실은 20칸(16㎡ 규모)로 분리됐다. 김영숙 동면변영회 춘란분과 위원장과 춘란 전문 강사인 김정현 난우회장을 중심으로 33명의 회원들이 재배실을 분양받아 품종별 난을 재배하고 있다.

동면변영회 춘란 재배 하우스는 화순춘란 재배

교육장(농주면)과 함께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폐광으로 침체한 동면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 사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선정돼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에 2025년부터 4년간 3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개소식 자리에서 "춘란 재배의 시작 단계인 동면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으로 화순이 난 산업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군, 전남도 규제혁신 평가 3년 연속 수상

함평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규제 개선 노력, 불수용 과제 해결, 적극행정 실적 등 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최우수 1개 시군, 우수 2개 시군, 장려 3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함평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함평군은 올 상반기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7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

를 확산시켰다.

특히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해결에 주력했으며,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규제예로를 해소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도 호평을 받았다.

함평군은 전년도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에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규제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12월호

2024년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10주년

광주 미디어아트 빛나고 있나요?

GWANGJU City of Media Art unesco

옛과 함께

함평 여행

황금박쥐 항일정신 빛과나비

기획-예술과 함께 승년

한국화단 두 거장, 수십 년 만의 귀향 특별전

'오지호의 빛과 천정자의 환상'을 만나다

에앙 초대석

'역사를 역사답게'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황현필

"기억하는 자가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됩니다"

에앙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그곳에 가고 싶다 전남 예술여행

해외문화기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우스 뮤지엄' 폐기 구겐하임 컬렉션

승년 기획 2024 문화계 결산

박찬 감독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함평의 예술가와 친구들@
감성 충만, 돌의 연금술사 전국광